마귀와의 동거

(고전10:14~22)

14.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5.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8.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9.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귀와의 동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번역된 단어는 마귀가 아니라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의 동거를 뜻하는 것이죠.
본문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위적으로 말하면, 동시에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삶을 지속하면서도 주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귀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동안에 주의 성만찬에도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있다는 얘깁니다.

귀신과의 동거, 마귀와의 동거로 단어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라고 하면 영어로 고스트(ghost) 혼, 쉽게 말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직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이 지상을 떠돌고 있는 원혼 같은 것으로 말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헷갈립니다만, 성경적으로 말해서 구천을 떠도는 원혼으로서의 귀신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기동자가 임했다, 그러므로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린 사람들을 보면, 무슨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혼이 임했다 혹은 처녀귀신이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장하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게 자꾸 속이는 거죠.
마귀의 가장 큰 특성은 속이는 것이고, 끝까지 속임으로써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천사처럼 인격적인 영체에요, 영체, 죽은 사람의 원혼이 아니라.
그것을 안다면 귀신과의 동거라는 제목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마귀와의 동거', 오늘 본문에 번역한 말대로라면 '귀신과의 동거' 그러니까 악마와의 동거죠, 아주 일상적이고 너무나 지독할 정도로 보편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마귀와의 동거 속에서 삶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이 귀신과의 동거를 저지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의 동거가 가능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귀신과 동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말하는 귀신과의 동거와 귀신들렸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봐도, 귀신들린 자들은 보편적인 상식을 넘어선 행동들을 합니다.
옷을 훌렁 벗고 뛰어다닌다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불과 물 가운데로 뛰어들고, 흉악히 귀신들렸다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광포하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또한 거라사 지방의 무덤 속에 거하는 군대귀신이 들린 자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게 귀신에 들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귀신과 동거하는 자들은 어떤 것이냐?

귀신과 동거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귀신에게 속습니다.
귀신과 동거할 때 나타나는 일이 우리의 삶 전체가 이 귀신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에게 속아서 사는 것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과 동거하고 있다는, 악마, 마귀와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업을 멋지게 하고 싶은 소원이 강렬하게 일어납니까?
귀신과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해서 연봉 1억짜리 인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귀신과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과 동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내게 적용되고 실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거할 때 나타나는 일이 뭔가를 알면, 왜 귀신과의 동거가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이나 소유욕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서 확인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을 잘 이룰 수 있기 위한 아주 탁월한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총적인 입지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귀신과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명목 아래서 귀신과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확증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좀 더 빨리 쉽게 능률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믿음생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향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귀신과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말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은 마음의 만족입니다.
돈 한 뭉치를 쥐어도 마음에 만족이 생기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왜 마음에 만족이 안 생기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이 생긴다는 것은 빈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만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정의 자체가 마음이 채워짐으로써

포만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게 기쁨이고 이 기쁨이 지속될 때 행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전부가 다 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소원을 갖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식을 키워도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결혼하는 이유도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복음인 이유는, 행복의 문제와 기쁨의 문제와 만족의 문제가 내가 문 열고 나가서 이 세상 삶을 살기 이전에 완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끝장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고, 이미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밖에 나가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 귀신과 동거하는 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과 동거하는 자들은 이제부터 기쁘게 되려고 삽니다, 이제부터 만족하려고 살고 이제부터 행복하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동거를 실현시킨 사람들은 완결된 기쁨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완결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주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안 이루어져서 불만스러운 상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골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완결돼야 되는 것이 임마누엘의 특징이고, 귀신과의 동거는 아담이 사탄에게 속은 뒤로부터 마귀의 속임수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아담은 인격적으로 속은 것이지만,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마귀에게 속은 그 속음이 유전적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속아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빈 마음이 채워져서 배부르고 만족해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만족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약속하고 인정한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서 만족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면서 노력하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속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귀신과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언뜻 보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말씀 같은데, 왜 우리가 지금 귀신과의 동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상숭배가 귀신과의 동거와 바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귀신과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교인들이 우상숭배의 현장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누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성만찬에 참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도, 불상에게 절하지 않고 굿을 하지 않지만, 우상숭배를 가능하게 하는 뿌리인 귀신과의 동거를 계속하면서 성만찬에도 참여하고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자, 사도바울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기 위해 성만찬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상숭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상숭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숭배하는 행위가 왜 나타나는가 하면 귀신과의 동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 얘기를 성만찬 얘기와 함께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만찬이 진행되고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고 신앙적 고백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연합을 하는 겁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는 말에서 끝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돼가는 겁니다.
죄 사함은 과정입니다,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죄 사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십자가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죄악의 더러움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마치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법을 갖추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게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최종목적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아서 천당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거할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완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결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바랄 것이 없어지는 상태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죽음과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문제가 완결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삶이고, 오늘의 번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과 우상숭배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왜 대비시키느냐?
십자가사건을 마음으로 붙잡지 않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는 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몸을 통해서 만나는 어떤 것을 이루려 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고,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보니까 내 능력만으로는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고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렸듯 우상은 놀라운 매력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갖고 우상 앞에 빌더라도 우상은 그 소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시어머니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빌어도 우상은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강한 매력이 있어서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게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귀신의 속임수는 활성화되고 극대화되며 귀신은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고, 결국은 귀신의 기쁨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신과의 동거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귀신에게 속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 지구 평면 위에서 미래에 이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 꿈을 갖고 매진하고…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귀신의 기쁨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원을 갖는 그 순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 중 '시험'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서 소원이 생기는 모든 순간이 시험의 순간입니다.
광야기간이 시험의 순간이었어요.
주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복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떡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세상의 인기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통해 시험을 극복하십니다.
광야에서 복지를 이루십니다.
모든 시험의 순간은 바로 내가 소원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소원이 생길 때, 무엇인가 부러워질 때,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시험의 순간입니다.
이 시험의 순간에 광야복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부러워지는 저것이 없어도 돼! 이루고 싶은 그것이 없어도 돼! 갖고 싶은 저것이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 한 분뿐이야!' 하며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붙잡고 성만찬의 의미처럼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내게서 실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새로운 언약이니까, 새 언약.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소원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려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소망할 때, 이게 바른 믿음이고, 이 바른 믿음 위에 주어진 약속이 실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현찰처럼 느껴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완결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원을 갖고, 그게 은근한 소원이든 노골적인 소원이든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미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마귀와의 동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기쁨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나의 소원을 걸러냄이 없이, 저지함이 없이 수용하는 것같이 느껴지기에 우상숭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곧 귀신숭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속이 상하십니까?
나를 보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 내가 지금 아담 이후에 인류를 속여 왔던 그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귀신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귀신과의 동거를 끝내려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살과 그 피에 동참하는 겁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죽음에 동참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고, 성만찬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성만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번제로 드리는 날마다 죽는 죽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거가 이루어져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완결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고 이루고 싶은 어떤 성취욕에 사로잡혀있는 한, 귀신에 속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도,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데, 그것만 이루면 될 것 같은 이 생각 자체가 귀신과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동거를 매일같이 현실화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귀와의 동거가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을 통해 증거 되고 있사오니, 이 세상에 소원이 생길 때마다 그 소원의 시험 순간을 광야복지를 이룸으로써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실현되는 하나님과의 동거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